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신학 본연의, 세션 1

문화적 맥락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문화적 맥락입니다.

신의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도 신을 찾도록 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당신 앞에 나아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어떤 교리도 신의 교리보다 더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리가 더 근본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신의 교리는 매우 근본적인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오류에 관해서는,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가정된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분의 거룩함이나 정의를 과소평가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속성과 자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질 중 일부를 공유하고, 다른 것들은 전혀 공유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질이나 속성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과 완성에 대한 단순한 언급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창조와 섭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를 바라며,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과정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와 탈현대 문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리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서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한 이 분야의 다섯 번째 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다룬 데이비드 웰스에게 빛을 쬔습니다. 데이비드 웰스의 다섯 번째 책은 회오리 바람 속의 하나님, 회오리 바람 속의 하나님, 현실의 중심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겪는 첫 번째 도전은 우리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앤서니 시슬턴은 두 가지 지평이라는 책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경 본문의 지평이 있고, 해석자의 지평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경력 내내 전자를 강조해왔지만, 기독교 진리를 탁월하게 전달하는 사람들, 저는 존 스토틀와 데이비드 웰스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두 지평을 융합하여,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에서 이해되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웰스는 첫 번째 도전은 우리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썼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아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기본 진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서 나와서 그를 알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주치는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마주치는 가장 심오한 진리라고 말해야 할까요.

웰스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많은 진리의 열쇠이지만, 우리 문화는 우리를 정반대의 패턴으로 밀어붙입니다. 우리 문화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해야 할 문화적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방식, 신을 보는 방식, 신에게 접근하는 방식, 신에게 바라는 바를 형성하게 될 테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 즉 성경적 종류의 믿음은 항상 주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응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죽음만 있던 곳에 새 생명을 주고, 전에는 없었던 곳에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경험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들로써의 입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주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내가 신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서 나와 그를 알라고 부르신다고 말할 때, 이러한 진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객관적이라는 뜻일까요? 글썄요, 기독교 신앙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로 있고 싶은 중심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압박적이고, 충만하고, 풍요롭고, 세계화된 문화에서의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은 별난 진술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신이 존재하고 우리 세상에 있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의 수가 보통 90-97% 범위였습니다. 90-97.

하지만 2013년 퓨 연구에서 미국인의 80%만이 자신을 이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조롱할 때, 리처드 도킨스가 말했듯이, 망상이고, 피터 스티븐 핑커가 말했듯이, 시대착오이고, 샘 해리스가 말했듯이, 그저 일련의 환상일 뿐이라고 조롱할 때, 그들은 모든 서구 문화권에서 주류에서 벗어났습니다. 게다가 서구인의 약 80%는 자신을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이는 세속화 과정이 매우 오랫동안 매우 깊이 진행된 유럽에서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해 물어보아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 의회는 1956년에 우리의 지폐에 In God We Trust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 믿음은 그들이 실제로 사는 방식과 약간 얕박하고 주변적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만, 그것은 큰 현금 가치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그들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들이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사는 방식을 정의할 만큼의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어도 서구에서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인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신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지만,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이 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폴 프라이스와 크리스토퍼 바더는 그들의 책 *America's Four Gods*에서 우리가 신에 대해 말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는 것은 다른 두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여줍니다. 첫째, 신은 삶에 개입하는가? 둘째, 신은 우리가 하는 일과 말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가? 만약 우리가 이 두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한다면, 신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할 때의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이 삶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현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실무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건물을 수리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는 집주인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그를 옆선에서 격려를 외치지만 경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치어리더로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환자와 항상 거리를 두는 치료사로 생각해야 할까요? 분석이 환자가 결국 자신의 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치료사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신을 판단하지 않는 분, 자신의 생각을 자신에게만 간직하는 분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 문화가 우리를 밀어붙이는 방향입니다. 신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의 신이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각도는 신이 우리의 약점과 실패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입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다양한 실패에 어떤 무게를 두는가? 우리는 세상에 대한 정보, 전쟁, 비극, 고통, 증오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에 대해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잔인한 일들을 감안할 때, 신은 정말로 우리의 사적인, 비교적 작은 실수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는 우리가 단순히 당혹감을 피하려고 할 때 여기저기서 약간의 속임수로 인해 형편이 나빠지시나요? 악의가 없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성적 약점은 어떨까요? 아니면 사실을 벗어나는

약간의 자기 홍보는 어떨까요? 그는 이러한 사적인 실패에 집착하시나요? 그는 정말로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그는 크고 관대하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간과하시나요? 그는 우리를 비난하기보다는 응원하는 데 더 관심이 있지 않나요? 이것 역시 우리 문화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사고방식이 교회에서도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청중을 거느린 조엘 오스틴 목사는 매주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합니다.

그의 설탕 같은 견해에 따르면, 신은 우리의 가장 큰 부스터인데, 슬프게도 그는 우리에게 더 많은 건강, 부, 행복, 자기 실현을 쏟아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 손을 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정말,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글썄요,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오스틴의 메시지는 오늘날 대다수의 미국 청소년들이 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 탐구에서 크리스찬 스미스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대규모 연구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2005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스미스가 이 청소년들 대부분에게 신에 대한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를 도덕적, 치료적 신앙주의라고 부릅니다.

복음주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인 견해는 신이 모든 것을 만들고 도덕적 질서를 확립했지만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은 삼위일체론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은 교회 청소년들의 사고방식, 심지어 복음주의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이 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신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교는 행복, 만족을 경험하고, 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 인터넷,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과 같은 물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문화에서 널리 퍼진 신에 대한 견해이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것은 서구적 맥락에서 가장 흔한 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것은 눈부시게 화려한 기술의 맥락입니다. 자본주의가 쏟아내는 풍요로움, 우리가 가진 엄청난 기회의 범위, 치약에서 여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끝없는 선택권,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에 대해 이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우리의 경험에서 상호 연결되어 우리의 생각 방식에 이상한 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이상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스 더우새트는 그의 저서 *Bad Religion*에서 이것을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는 만연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단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옳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이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왜곡은 진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복잡한 질문에 대해 보도록 하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문화 분석을 위해 데이비드 웰스에게 빚을 졌습니다. 문화 분석은 분명히 제 강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역설. 이 맥락, 이 고도로 현대화된 세계는 데이비드 마이어스가 미국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역설은 미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서양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서양 밖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번영하는 지역에서도 같은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우세한 관점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역설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적이 없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적은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선택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풍요, 더 정교한 가전제품, 더 많은 자동차, 더 나은 집, 더 많은 편안함,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가진 적이 없었다.

이것이 역설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은 모든 측면에서 우울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만연하고, 불안이 더 심하고, 혼란이 더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비율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으며, 동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실, 2012년 미국에서는 53%의 아이들이 혼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많은 아이들에게 다가올 빈곤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역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 1830년대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졌지만 그들 사이에 이상한 우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수준에서 서로 평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평등은 부와 소유물 측면에서 동등한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토크빌은 자신이 본 그 우울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설명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요가 반드시 힘이 없고, 무조건적인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문화적 역설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우리는 토크빌이 거의 2세기 전에 보았던 미국과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많은 치료사들은 이제 이 역설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삶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좋은 집에서 자랐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에 진학했고, 아마도 직장에도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공허함에 당혹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높지만, 그들의 자아는 공허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불행하지만, 그들의 불행에 대한 이유는 없는 듯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종종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게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설입니다. 이 양면적인 경험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지금 신에 대해 생각하고 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일 것입니다.

한편, 풍요로움, 겉보기에 무한한 선택권, 기회, 끊임없이 상승하는 풍요로움의 경험은 거의 필연적으로 권리 의식을 낳습니다. 최근까지 각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가 그만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기대는 비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격감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성공만을 바라는 응원단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스터하고, 고무시키는 코치이며, 우리에게 끝없는 번영의 원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좋은 삶이란 삶에서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를 이러한 축복의 끝없는 분수로 봅니다. 그는 우리의 컨시어지입니다.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인용문에 나오는 복음으로, 서구에서 세계의 미개발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견해가 이런 종류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그들이 서양 의학 전문 지식과 서양의 풍요로움을 즐기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건강하고 부유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역사를 통해 길고 구불구불한 여정을 걸어온 동안, 우리는 이와 정확히 같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소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특정한 목표를 가정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부와 그것을 즐길 만큼 충분한 건강을 갖는 것. 그러면 믿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얻을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독교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로 수출된 곳에서는 이것이 광고되는 믿음입니다.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입니다. 몇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떠날 때, 저는 간단한 질문이 적힌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고 싶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아래에는 건강 및 부의부서에 속한다고 들은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아프리카 도시에는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기적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기적 센터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기적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성전의 환전상들은 예수를 너무 화나게 해서 예수는 그들을 건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과 부의 운동에서 그들의 현대화된 자손을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춰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비 사회와 신이 우리의 부름에 응한다는 우리의 기대에 그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광대하고 넓게 퍼진 복음주의 제국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풍요로움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의 반대편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데에는 공허함과 상실의 경험도 수반됩니다. 우리는 삶의 혹독함, 직장에서의 좌절, 상처받고 깨진 관계, 깨진 가족, 지속적인 우정을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 이 세상에 대한 소속감의 부족, 세상이 공허하고 적대적이라는 느낌을 너무나 많은 결핍 속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내면의 위안, 이러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제책을 찾습니다.

우리는 신을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치료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은 위로, 치유, 영감이므로, 그것이 우리가 그에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교회 경험에서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고,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이 또 다른 근무일이 되거나, 또 다른 부담이 되거나, 노력과 집중이 필요한 일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부담과 투쟁이 있고, 우리의 근무 주에 집중해야 할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안도감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 양면적인 경험, 이 역설이 어떻게 우리의 신에 대한 이해를 형성했는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부드럽게 걸으며, 부드럽게 만지고, 들어올리고, 위로를 보장하고, 인도해 줄 신에 대한 갈망을 남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이 수용적이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이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관대한 덩어리를, 심지어 복권 당첨을 통해서도, 분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남겨 둡니다. 어쩌면 우리는 파워볼이나 경품 추첨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의 종류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신은 내면에서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저는 데이비드 웰스의 회오리 바람 속의 신에서 발췌한 이 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주들은 우리 문화 내의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은 내면에서 사라진다. 우리가 주장했듯이, 이런 태도는 아마도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서구 사회 아래의 지각판이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적어도 1960년대 이래로 우리 문화에서 진행되어 온 적어도 두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거대한 변화의 최종 산물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신이 초월적이고 거룩했던 오래된 도덕적 세계를 벗어났고, 그가 임박하고 사랑스러울 뿐인 새로운 심리적 세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에 뿌리를 둔 사물을 보는 방식의 변화가 이제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확인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제 인간 본성이 아닌 자아의 관점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단순히 직관의 내부 핵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전기, 성별, 민족성 및 삶의 경험이 모두 자의식의 단일 센터에서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아는

고유한데, 아무도 정확히 동일한 개인적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보고 무엇이 진실인지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독특하게 개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삶과 그 의미에 대한 우리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 관점은 다른 관점과 마찬가지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 어느 것도 절대적인 도덕적 규범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이 사는 곳입니다.

Losing Our Virtue, Why the Church Must Recover Its Moral Vision 에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어버린 도덕적 세계와 새로운 자아의 출현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함께 일어나고, 각각이 다른 하나를 부추깁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에 이러한 문화적 변화가 진행 중이었을 때, 그것은 매우 급진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반란적인 새로운 좌파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영향력 있는 책들, 예를 들어 Theodore Roszak의 *The Making of a Counterculture*와 Charles Reich의 *The Greening of America*는 마치 계몽주의가 가정했듯이 우리의 이성이 완전히 편향되지 않은 것처럼 계몽주의 합리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다른 측면은 직관과 상태에 대한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었고, 이는 물론 문화가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방식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급진적인 새로운 좌파에서 시작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스트모던 세계의 진부한 가정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급진화가 주류가 되었고, 여기서 필립 라이프가 심리적 인간이라고 부른 것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 외부의 모든 참조점을 벗겨낸 사람입니다. 도덕적 세계도 없고, 궁극적인 옳고 그름도 없으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적 현실만이 중요하며, 과거의 공동체나 이해에 대한 의무나 외부에서 온 신의 침입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삶이 건설되는 기반은 자아 외부에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이 자아는 단지 기뻐하고 싶어할 뿐이다.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 이것은 도덕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성되는 치료적 신앙이다.

1960년대 이후,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 유행한 단어는 개인주의, 자기애, 나 세대, 물병자리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초월 명상과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타임 울프의 훌륭하게 신랄한 소설 허영심의 모닥불과 같은 책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1980년대의 뉴욕을 네 명의 저속한 인물의 관점에서 묘사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더 높은 선이 없고, 자신의 외모에 투사하는 것 외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허영심이 강하고 공허합니다. 그들은 포즈와 자기 투사의 모음에 불과합니다.

올리버 스톤의 1987년 영화 월 스트리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탐욕에 이끌리고 완전히 비도덕적인 세상에 살았던 월 스트리트 거래자들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세대의 새로운 치료적 집착이 교회에 스며들었지만 덜 눈에 띄고 더 살균된 버전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회고하면서, 웨이드 클라크 루프는 부머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종교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영과 제도라고 불리는 것의 구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제도적 측면인 교회는 회의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교회 교리가 아닌 내적인 것에 신뢰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식화한 교리는 교회 권위가 아니라, 외부 권위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신은 개인적인 직감에서 발견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의 사적인 세계를 믿었고 교회가 하는 일과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1990년대 말까지 서구 전역에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낳은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약 80%가 영적이라고 말했고, 여기에는 종교적이기도 한 사람들이 포함되었지만, 모든 종교에 분명히 적대적인 영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믿어야 할 교리, 따라야 할 규칙, 참석해야 할 교회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과한 종교적 또는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충동은 1990년대에 지배적이 되었고, 물론 TV와 인터넷이 이러한 성향을 키웠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매주 자신의 거실이나 컴퓨터에서만 영적 고양을 얻습니다. 그들은 결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글썄요, 그들은 교회에 가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갑니다.

루프가 분석을 했을 때, 그는 이것을 세대적 습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베이비붐 세대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러한 전망이 한 세대에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X 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따른 사람들은 정확히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미스가 10대에 대한 연구에서도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세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문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미국적 역설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그들은 그 포스트모던적 분위기와 해결책의 일부입니다.

오프라가 TV 제국을 건설한 토양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매주 그녀의 쇼를 시청하는 팔로워들은 마음속으로는 사과파이만큼 관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르는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시대를 예고했고, 구원은 오로지 치료에 관한 것이고, 행복은 바로 코앞에 있으며, 소비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프라의 좋은 점은, 그녀 자신이 토스트 위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녀의 오류와 단점은 모두 고통스러운 솔직함의 순간에 드러난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사적인 고백실에 있는 것 같았지만, 스스로에게 고백했지만 온 세상이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물론 오프라가 파헤친 문화적 태도는 개인적 만족이나 종교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로버트 니스벳은 그의 저서 *Twilight of Authority*에서 그러한 태도가 어떻게 전체 정치 과정을 훼손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자기 집착, 우리의 완전한 자기 집중을 감안할 때, 공동체에 중요한 것에서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으로 후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에서 덧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서 우리 자신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대화는 사람들이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두었던 시절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마도 이것의 전형은 1858년의 7회에 걸친 링컨-더글러스 토론이었을 것입니다. 신문에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긴 시간 동안 심각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닐 포스트먼이 *Amusing Ourselves to Death*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국가적 문제들은 TV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소한 일에 몰두하게 되면, 삶이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우리의 본성의 행복에 대한 대중의 토론이 작은 TV 사운드바이트의 아기 이야기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문화적 죽음의 첫 번째 냄새를 맡게 됩니다.

더 이상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방법이 없고, 사적인 이기심 외에 다른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의욕도 없습니다. 기네스가 썼듯이, 국민이 자국의 건국 원칙에 맞서 일어서는 순간이 국가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테러 공격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책 제목에서 말했듯이, 자유민의 자살입니다. 왜? 공화국을 하나로 묶는 것은 결코 헌법과 우리의 법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무딘 도구입니다. 불법이 아닌 비윤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거짓말은 불법이 아니지만 항상 비윤리적입니다.

우리의 형사 및 민사법은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많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미덕이 처리하고, 바로 이것이 이 자기 지향적이고 자기 소비적인 문화에서 침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국가의 기초를 갉아먹고, 객관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고, 오래된 관습을 뿌리째 뽑고, 사람들에게 명확한 목적의식을 남기지 않고, 사실상 전혀 목적이 없는 채로 두는 산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외에는 말입니다.

포스트모던의 태양 아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현실 버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문화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문화는 인터넷에서 공기, 파도,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떠도는 피상적인 공식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은 다시 키치로 제공되고, 모든 사람은 이것이 한때 그랬던 것과 같은 깊고 오래된 것이라고 가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모리스 버먼이 주장하듯이 미국 문화의 황혼기에 있습니다.

사물은 모호해진다. 이러한 성향은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가 그의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명확히 밝혔다. 프랑스식 장황함과 이상함으로 인해, 책에 따르면, 그것은 미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스스로 걸어왔고, 같은 프랑스 작가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90년대에 작가와 영화는 독립적인 현실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것은 이해의 개인적인 틀이며, 의지할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이해할 때만 존재합니다. 과학적 이론 만들기에 대해 글을 쓴 토마스 쿤은 이제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인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거와 감자튀김에 대해 말하듯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물들 사이의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비했습니다. 제임스 리빙스턴이 말했듯이, 미국인들은 이 길을 가기 위해 재임 급진주의자들의 재촉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러한 타락한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구분은 1960년대 이후 우리 문화가 자체 변형을 시작하면서 점점 사라지는 경계였습니다. 우리가 가정하고 주장하게 된 모든 것은 동물입니다.

우리가 있는 전부는 우리의 몸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개인적 현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과 차별화되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피어싱과 문신과 같은 작은 외부 장식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것은 문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쿨함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독특한 몸으로, 다른 것으로 돋보이게 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 속에서, 신비로움 속에서, 그리고 그 신비 속에서, 글썄요, 아주 바람직한 무언가로서.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물의 구별이 사라졌다면, 이는 권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동물도 인간과 다르지 않으며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확신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물도 그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동물도 우리의 변호사 중 일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역겹죠. 경계의 사라짐은 신체와 관련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별과 관련해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별의 조작 과 휘두르기는 다른 이국적인 것들과 함께 사회의 가장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상당한 문화적 수용을 얻었고, 그 수용은 이제 바로 주류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족을 재정의하려는 심오하고 다각적인 노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사회 실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당시의 계급 제도를 재설계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도는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서구 사회는 가족에 대한 사회의 기본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해 똑같이 대담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이러한 사회 실험이 무너지면 엄청난 혼란, 무질서, 고통이 뒤따릅니다.

아닌 다른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내부 메커니즘을 통해 스스로 작동하는 DNA일 뿐입니다.

이것은 블레이드 러너와 최근의 매트릭스와 같은 우리 영화 중 일부에서 허영심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였을까요? 우리가 먼저 경계를 허물고 우리와 신 사이의 오래된 경계도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그 경계가 먼저 사라졌고 사라지자 모든 삶을 다시 상상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되었든 외부의 신은 이제 사라지고 내부의 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초월성은 임박성에 삼켜졌습니다. 신은 오직 자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자,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했던 대로, 옳고 그름의 경계는 떨어지는 스키텔의 줄처럼 무너졌습니다.

악과 구원은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두 가지 대안이 아닙니다. 진실은 모든 삶이 다시 구상되고 재구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다른 기반 위에 재건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 외부의 신이 죽으면 자아가 즉시 들어와서 그 공백을 메웁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자아도 죽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의미와 현실도 사라진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헉슬리의 디스토피아 소설 *Brave New World*는 결국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로를 질주하는 고속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옆으로 몸을 기울여 발꿈치를 땅에 박는 것만으로 기차의 속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감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문화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포 영화는 그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것들은 표면에 떠오른다. 우리가 가진 미숙한 감각, 즉 공포의 감각.

우리 세상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숨어 있는 위협이 숨어 있다는 느낌. 우리는 직감적으로 무서운

재앙이 우리 위에 닥쳐온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미국 교회는 이 현대화된 세상을 마주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지만 이 참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가장 난감한 딜레마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종종 기독교 신앙을 이 맥락에 적응시키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필요한 맥락에 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에 대한 대안적 관점이 되기보다는 종종 이런 종류의 현대화된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의 여러 면에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문화에 적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보고 놀라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서구 사회에서는 가슴 아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위대한 생각. 우리 세상은 그 기초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 현실의 의미, 복음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제공하는 대신, 달콤하지만 대부분 가치가 없는 작은 치료적 만병통치약만 제공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현 교회 소녀들은 깊고, 값비싸고, 요구하는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 저항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객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맞추려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는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불러서 그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조건에 따라서만 그를 알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소환은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말씀을 통해 들립니다. 우리의 직감을 통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부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대로, 그리고 그가 규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정한 틀 안에서 이 부름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며, 단순히 그의 큰 은행에서 물건을 나눠주는 신성한 계산원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를 섬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지역 교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배워야 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진리, 거기에 있는 그분과 일치하는 진리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를 그 자신을 아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는 우리의 상황 밖에서 옵니다. 그는 우리의 주관성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침입하여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수세기 동안 전개되어 온 그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우리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그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옳고 참된 관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자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그 자신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므로 신은 우리가 신 앞에 서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객관적입니다. . 우리는 신 앞에서 식인종이고 그의 거룩함의 세계 안에서도 식인종입니다. 우리는 신이 우리를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적으로 신을 압니다.

요한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10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19 사랑의 정의와 사랑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사랑을 최고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 강의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존의 사랑을 정의하는 문장은 오늘날 서양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필요로 할 때 신이 우리를 위해 거기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내면의 위안을 주고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충만감을 주고, 우리에게 물건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한다는 점에서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오스틴이 이 모든 것을 반복할 때, 그는 자신의 문화적 터치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줍니다.

대조적으로 성경의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성경의 세계는 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깊고, 끈기 있고, 오로지 치료적입니다.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격으로 정의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신과 자아 속으로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인 신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의 교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파악해야 할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심리적 틀에서 삶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자아의 중심에서 그렇게 합니다.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도덕적 틀 안에서 삶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정의하는 분은 거룩하신 그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사랑으로 그분이십니다. 포스트모던적 관점에서 우리는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다에 갇힐 것입니다.

사랑과 거룩함의 상호작용은 동시에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신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크게 지지하지만 그의 거룩함이라는 생각은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진화한 원시적 과거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신의 심판과 같은 가혹한 신화를 믿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문화권, 특히 급진화된 이슬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신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멸시하고 그를 오직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서구적인 감상주의의 일부로 여겨진다. 즉, 그들의 사회는 가혹한 법률과 잘못에 대한 복수와 보복의 모든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용서는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과 거룩함을 독특하게 결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 둘은 결합되어 왔고 항상 결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성경이 말하는 그의 성품의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반대하는 것, 즉 사랑은 기본이고 거룩함은 이차적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거룩한 사랑이라는 속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매우 어려운 표현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고수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끊임없는 유혹은 우리의 문화에 의해 도움을 받고 방조되어 하이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거룩함 없이 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 규범이 없는 우리만의 사적인 치료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신의 거룩함은 불쾌하고 원치 않는 침입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거룩함이 없는 그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우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문화적이고 다소 우울한 소개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가 거룩한 사랑이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임을 배우는

데에 대한 틀을 마련해 줍니다.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문화적 맥락입니다.